

경상지역 기초지자체 특화발전 활성화 워크숍 결과

□ 개요

- 일 시 : 2012. 6. 26(화) 14:00~6.27(수) 13:00
- 장 소 : 경북 청송군청 2층 대회의실
- 주최/주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 후 원 : 국토해양부, 경상남도, 경상북도, 청송군, 경남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 참석인원 : 70여명(위원장, 대경권광역위 사무총장, 청송군수, 발제·토론자, 지자체 관계자 등)

□ 진행순서 및 내용

- 개 회 식
 - 개 회 사 : 박광길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
 - 환 영 사 : 한동수 (청송군수)
- 주제발표 : 2건
 - 기초지자체 특화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이왕건/국토연구원)
 - 시군 특화사업의 브랜드 육성 전략(윤지영/부산발전연구원)
- 특화사례 발표 : 2건
 - 순창장류산업 특화발전 사례(정도연/순창군 발효미생물관리센터장)
 - 문경오미자사업 특화발전 사례(이우식/문경시 농업기술센터 계장)
- 지정토론(5명/ 지역위 1, 경북 1, 교수 2, 전문가 1) 및 질의 응답

□ 주요 토론내용

○ 오익근 (좌장 / 계명대학교 교수)

- 지역의 향토자산을 활용한 특화산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타지역의 동일·유사한 사업들과의 경쟁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안 마련을 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 지역위의 특화발전 컨셉은 지역 내부의 자산을 활용하여 발전하자는 취지이지만 “키워”의 사례와 같이 외부의 자원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내재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화발전 사례 발표의 공통점은 역사성인데(문헌 근거), 향토성이라는 것은 역사성이 있어야 생명력을 가질 수 있으며, 향후 유사 상품들의 난립 과정에서 정통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경우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
- ‘발효식품을 선도하는 순창’의 슬로건과 같이 지자체장이 바뀌어도 지속되는 아이টে은 브랜드로서 경쟁력을 가지게 됨
- 지역 내 인구 유출에 따른 생산인력 부족 문제의 심화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행정의 재정 부담 증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 의성과 구례의 산수유, 진주와 청도의 소싸움의 사례에서와 같이 아이টে은이나 이슈를 선점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마케팅 전략의 추진은 브랜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임

○ 권용덕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지역자산 맵 제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역자산의 유형과 함께 이를 정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 마련이 필요함
- 지역특화사업의 추진은 이미 기존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개념이지만 최근 논의되고 있는 특화발전과 기존 관련사업의 차이점은 내부적인 노력을 중심으로 추진하자는 것임

- 지역 특화사업의 발전 과정을 보면 초기단계가 특화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자치단체 노력으로 활발히 추진되다가 이후 특화 아이템에 대한 벤치마킹 과정에서 유사 중복 아이템의 양산으로 전체적인 경쟁력 약화
- 이러한 과도기적 단계를 극복하고 지속성과 생명력을 유지한 아이템들을 대부분 현재 성공한 특화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문경 오미자, 순창 고추장, 고창 복분자 등임
- 특화사업 추진의 과제로는 유사 중복 아이템의 문제,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 이후 관련 예산 공급량의 감소, 지역 내 브랜드의 난립과 전략적 육성 방안의 부족 등임
-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으로는 정부 예산에 대한 중복·분산 투자로 인한 효율성 감소의 극복을 위해서 특정 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집중적인 예산지원 제도 마련과 1, 2차 산업과 함께 3차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
- 지역 내 브랜드 중복 난립을 극복하고 대표 브랜드 육성을 위한 브랜드 육성 및 관리 전략을 지자체 차원에서 고민하고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관련 분야에 대한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함

○ 문태현 (경상대학교 교수)

- 지속적인 연구개발이나 홍보가 없으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이며 유사한 아이템의 중복은 피해야 할 문제이지만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함. 오히려 지속적인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중복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포커스를 맞춰야 함
- 특화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한 지역 내의 전문가 집단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 공무원임. 공무원의 리더십이나 조직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임. 공무원으로 구성된 스터디그룹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열의를 가진 사람,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자본을 가진 사람 등등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 모아서(어떻게 키워서) 활동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사례를 들자면 현직 대학교수가 지역에 직접 들어가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지원(지식 기부)을 통해 지역 발전의 계기와 방법 제공

- 사업 재원의 투자는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시범사업의 유치를 통해 사업초기의 추진 동력을 얻도록 해야 함
- 사업추진에 대한 데이터를 백업하고 정리하는 기능을 가지는 역할을 행정에서 담당해줘야 함

○ 나영강 (경북도청 사무관)

- 특화사업에 대한 개발에는 정책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있지만 이것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부문에도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즉, 기존의 지역 특화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명품화, 업그레이드) 지원정책 마련 필요
- 지역의 자원을 누가 어떻게 실로 꿰느냐가 중요하며, 행정에서의 전문성 부족의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 필요(공무원의 전문성 한계)
- 식량 대책에 대한 관심도 특화발전의 아이টে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잡곡 부분도 새로운 특화발전 아이টে으로 검토할 필요

○ 신광호 (성장기반과장)

- 성공한 특화발전사업의 요인으로서는 특화품목의 현명한 선택, 사업을 리드할 인적자원의 확보,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 브랜드 전략의 수립과 추진, 행정차원에서의 적절한 지원정책 추진 등임

□ Q&A 내용

○ 김준호(거제시 공무원, 질문)

- 인적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언급하고 있으나 지역 여건상 인적 자원 확보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며, 일부 사업에서 사업 선정 후 관리가 안되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이 있음
- 대안으로 지역 내의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비용을 지원해서 지역의 특화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문태현** 교수(답변)

- 거제 종합발전계획을 공무원 자체적으로 수립 중임

○ **이왕건** 박사(답변)

- 무조건적인 특화발전 사업 추진은 위험성이 있으며 지역의 여건(기후, 인력의 확보 여건, 관련 기반 등) 변화에 대응하는 추진 전략이 필요
- 국가적인 지원 정책과의 연계 기회를 잘 잡아야 하며, 특화발전 규모 및 수준에 대한 인증제 도입 검토가 필요함









